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1.02)

1. 미국,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농민단체 반발

- The Economist (2009.10.24) 주요 내용

- 미 상원은 탄소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추진 중
 - USDA Tom Vilsack 장관, “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료나 비료 등 농업부문의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나, 그 외 다른 부분을 통해 농민에게 돌아올 이익이 더 클 것”이라고 언급
- 농민단체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
 - 미국 여러 농민단체들은 법안의 일부 수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
 - 농민들 사이에 입법 반대를 표시하는 카드나 스티커가 배부
- 법안 반대를 위한 의회 등 농업분야 로비 활동도 증가
 - 지난 6월 하원에서 통과된 1,200페이지 분량의 법안은 농업부문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성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.
 - 이번 상원 법안 역시 로비활동을 통해 더 많은 대가들을 유도해 내거나, 심할 경우 법안 자체가 무산되도록 할 것임.
- 의회와 정부 차원의 농민 보상책 마련
 - 기후변화 대응 법안 통과 시 에너지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게 됨.
 - 이러한 부작용을 만회하기 위해,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Collin Peterson은 하원 법안에 여러 가지 농업부문 보상책을 포함함.
 - 또한, USDA의 주요 업무가 환경 보호가 아닌 만큼 농업부문 보상 프로그램 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.
- 지난 9월말 Barbara Boxer, John Kerry 등에 의해 제안된 상원 법안은 하원 법안에 비해 농업 부문에 제공하는 것이 훨씬 적음.
 - 하지만 법안의 분량이 821페이지로, 하원 법안에 비해 (농업부문에

미치는 부정적)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.

○ 미 전역에 25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농민단체 National Farmers Union(NFU)의 Roger Johnson 회장은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보상한도를 무제한으로 해 줄 것을 희망

- 이러한 보상이 뒷받침된다면 기후변화 대응법은 농업부문에 소득원으로서의 좋은 기회가 됨과 동시에, 환경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

* 하원 법안은 보상의 상한선을 10억 톤으로 제한하고 있음.

○ 다른 농민단체인 American Farm Bureau는 어떤 형태의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 유지

- 높은 연료비와 비료비는 미국 농민들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며,

- 특히, 과일 및 채소 재배농가는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.

- 이 단체는 소속 농민들에게 법안 반대를 위한 여러 가지 공동 행동 지침을 전파하고 있음.

○ 이러한 반발에 대해 일각에서는 놀라는 반응임.

- 환경운동그룹(Environmental Working Group)의 Craig Cox는 하원의 법안이 이미 농업을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함.

- 하원 법안에 대한 USDA의 연구에 따르면, 농업순소득은 단기적으로 0.9%(2012~18년), 중기적으로 3.5%(2027~33년), 장기적으로 7.2%(2042~48년)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, 이 연구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나 생산부문에서의 가능한 변화 등 농업에 이득이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음.

○ Vilsack 장관, 이번 입법이 농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

- 탄소배출량 감축은 기온 상승에 따른 홍수나 역병 등의 재해 방지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, 농업이윤 증대에도 기여할 것임.

- 농업부문에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 종종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음에도,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민들도 지

지하게 되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될 것으로 판단함.

2. 미국, 기상 악화로 작물 생산량 감소 전망

- Wall Street Journal (2009.10.27) 주요 내용

- 강우와 낮은 기온 등 악화된 기상 여건으로 미국의 옥수수, 대두 등 작물 수확 지연
 - 올 초 기상여건 악화로 이들 작물의 파종이 늦춰진 바 있으며, 현재 수확 지연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음.
- 옥수수의 수확 진행율이 USDA가 기록을 유지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, 대두 역시 수확이 늦게 진행
 - 수확이 지체될수록 단위 손실이 증가할 것임.
 - 10월초, USDA는 미국 옥수수 생산량을 130억 부셸, 대두는 30억 부셸로 풍작을 전망한 바 있으나,
 - 옥수수의 경우, 현재와 같은 수확 지연 시 1억 2~5천만 톤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치 제시
- 옥수수, 대두 등 작물의 수확 지연과 생산량 감소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가격 상승 유발
 - 10월초 이후,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각각 13%와 11% 상승하였음.
 - 가을에 수확이 시작되면 이들 작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, 올해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.
- 그 밖에도 추수감사절 필수 식재료인 호박, 고구마, 페칸(pecan) 역시 잦은 강우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음.
 - 일리노이주(州)에서는 파이 조리용 캔 제품에 쓰이는 호박의 90%를 생산하고 있는데, 이곳 역시 강우로 인해 호박 재고가 부족한 상황임.
 - 미국 최남부 지역(미시시피, 루이지애나주(州) 등)에는 연이은 강우로 세균성 병균이 확산되어, 이 지역 주요 농작물인 고구마와 페

칸의 생산량과 품질을 하락시킴.

- 미국 최대 pekan 생산지인 조지아주(州)의 경우, 올해 생산량이 USDA의 당초 전망치보다 2천만 파운드 감소한 9천만 파운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.
- 미국 내 고구마 3대 주산지인 루이지애나주(州) 북부 지역은 9월 중순부터 이어진 많은 강우량으로 고구마 수확이 지연됨.